

## 국제산공(주) 신윤하 회장, 자랑스런 성균인상 수상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신년인사회에서 자랑스런 성균인상을 수상한 신윤하 국제산공(주) 회장(사진 왼쪽)

국제산공(주) 신윤하 회장이 지난 1월 15일 역삼동 GS타워에서 열린 성균관대학교 총동창회 신년인사회에서 '2013년 자랑스런 성균인상'을 수상했다.

신윤하 회장은 1963년 성균관대학교 문리대 생명과학과를 졸업했고, 지난 2006년부터 성균관대학교 동창회에서 활동하기 시작하여 경

영인 포럼회장, 동창회 자문위원, 운영위원, 분과위원장협의회 회장 등 성균관대학교 동창회에서 큰 역할을 해왔으며, 성균관대학교에 장학금과 글로벌센터 건립기금으로 각각 1억여 원을 후원하는 등 후학 양성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성균관대학교총동창회(회장 류덕희 · 경동



사진 왼쪽부터, 류덕희 성균관대 동문회장, 신윤하 회장, 김준영 총장, 서정돈 재단이사장

제약 회장은 국제산공(주) 신윤하 회장에게 성균관대학교의 위상제고와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2013년 자랑스런 성균인상'을 수여했다.

국제산공(주)은 보온·보냉 단열시공 전문 플랜트설비 회사로서 7개 해외법인과 지사를 가진 중견기업이다. 신윤하 회장은 기업 이익의 사회환원 중 가장 가치있는 것은 인재발굴과 양성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1992년 동운장학회를 설립해 장학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

또한 기술력과 정보력을 공유하기 위해 한국 플랜트설비협회 협의장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국가산업발전의 공훈을 인정받아 1999년 국무총리 표창을, 2006년 제2회 플랜트의 날에는 대통령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이와함께 역삼세무서 세정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많은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한 공로로 2010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을, 2002년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